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28-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조사(2025년 상반기)

2025. 5. 7.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주요 5개국 지도자 호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감도 24.7도,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보다 20도 가까이 낮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호감도는 13.8도, 역대 최저치 기록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5개 국가\(러시아, 북한,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4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호감도가 50.0도로 여전히 주변 5개국 중 가장 높지만, 지난 1월 대비 9.0도 하락해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 호감도는 25.0도로 다시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국과 러시아 호감도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 호감도를 묻는 것과 동일한 감정온도 방식(0도 ~ 100도, 0에 가까울수록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에 가까울수록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호감도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5개국 정상 모두 호감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24.8도)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4.7도)의 호감도가 비슷한 수준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19.0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15.0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13.8도)은 매우 낮은 수준의 호감도를 보인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는 역대 최저치이며, 2023년 하반기 16.7도에서 15.2도 → 14.4도 → 13.8도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취임 후 이번 조사에 처음으로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도는 24.7도로,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호감도(43.4도)보다 20도 가까이 낮다. 지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좋지 않은 편이었는데,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020년 6월~8월 전 세계 13개국 국민 13,2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한국 국민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17%에 불과하였다. 지난 [미국 대선 직전 한국리서치가 진행된 조사](#)에서도, 우리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후보로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목한 사람은 64%인 반면, 트럼프 후보를 지목한 사람은 7%에 그친 바 있다. 취임 직후부터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 다수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분쟁을 벌이는 것 또한 호감도를 낮춘 요인으로 추측된다. 다만, 취임 후 첫 번째 호감도 조사이기 때문에 향후 변화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감도 24.7도, 전임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보다 20도 가까이 낮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호감도는 13.8도, 역대 최저치 기록

23. 10 ~ 24. 10:

조 바이든
(Joe Biden)

(단위 : 도)

44.8 43.7 43.4

'23 '24 '25

10월4월10월4월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23. 10 ~ 24. 4:

기시다 후미오
(Kishida Fumio)

'23 '24 '25

10월4월10월4월

이시바 시게루
(Ishiba Shigeru)
일본 총리

24.7

23.6 24.1

'25

27.6

'25

10월4월10월4월

시진핑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23 '24 '25

10월4월10월4월

19.7 18.1 19.2 19.0

10월4월10월4월

김정은
(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

'23 '24 '25

10월4월10월4월

16.7 15.2 14.4 13.8

10월4월10월4월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23 '24 '25

10월4월10월4월

16.5 14.7 14.6 15.0

10월4월10월4월

한반도 주변 5개국 지도자에 대한 감정온도 응답분포

(단위 : %)

2025년 4월 조사	사례수 (명)	부정적		중간 (50도)	긍정적			
		매우 부정적 (0~24도)	약간 부정적 (25~ 49도)		약간 긍정적 (51~ 75도)	매우 긍정적 (76도 이상)	긍정적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	(1000)	56	16	71	20	6	3	9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1000)	60	14	74	14	5	7	12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1000)	68	11	80	13	4	3	7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	(1000)	76	10	86	8	3	3	6
김정은(Kim Jong Un) 북한 국무위원장	(1000)	77	9	87	8	2	3	5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비고: 2023년 10월 ~ 2024년 4월 일본 총리 호감도는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전 총리의 호감도임
2023년 10월 ~ 2024년 10월 미국 대통령 호감도는 조 바이든(Joe Biden) 전 대통령의 호감도임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3. 10. 27 ~ 30 // 2024. 4. 18 ~ 22 // 2024. 10. 25 ~ 28 // 2025. 4. 21 ~ 2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진보층 호감도 17.4도, 보수층 호감도(35.3도)의 절반 수준 18~29세 응답자의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는 모두 한 자리수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이념성향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보수층에서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35.3도인 반면, 진보층에서의 호감도는 17.4도로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시바 총리 호감도 또한 진보층(20.3도)보다는 보수층(31.8도)에서 높다. 이는 지난 2024년 하반기 조사와 동일하다.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는 2·30대에서 특히 낮고, 특히 18~29세에서 세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한 자리수에 그친다(시진핑 주석 8.2도, 푸틴 대통령 9.1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6.9도). 30대에서도 푸틴 대통령 호감도가 11.0도로 겨우 두 자리 수를 기록할 뿐, 시진핑 주석(9.8도), 김정은 국무위원장(9.0도) 호감도는 한 자리수에 머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진보층 호감도 17.4도, 보수층 호감도(35.3도)의 절반 수준 18~29세 응답자의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 호감도는 모두 한 자리수

(단위 : 도)

		이시바 시게루 사례수 (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체	(1,000)	24.8	24.7	19.0	15.0	13.8
성별						
남자	(495)	27.7	27.0	18.9	16.9	13.9
여자	(505)	22.0	22.5	19.1	13.2	13.7
연령						
18~29세	(153)	21.8	20.5	8.2	9.1	6.9
30대	(150)	19.1	21.3	9.8	11.0	9.0
40대	(173)	19.9	23.9	17.0	13.4	12.9
50대	(195)	22.7	21.7	23.2	17.9	17.4
60대	(178)	32.7	28.4	28.9	19.1	19.5
70세 이상	(151)	32.6	32.8	24.3	18.5	15.3
이념성향						
진보층	(288)	20.3	17.4	22.1	15.1	17.7
중도층	(341)	22.5	20.6	17.6	14.0	11.9
보수층	(337)	31.8	35.3	18.7	16.8	13.2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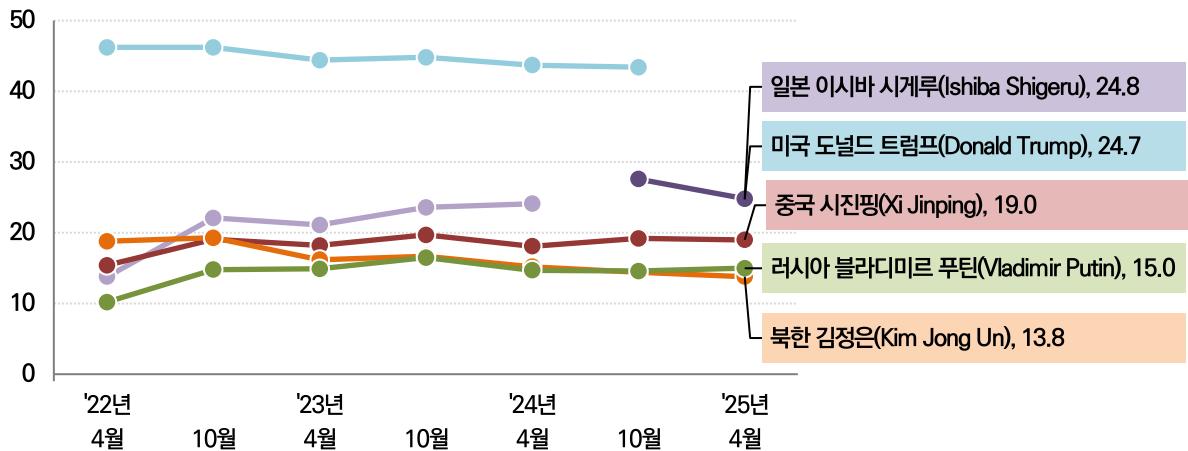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4. 21 ~ 23

한반도 주변 5개국 지도자 호감도 변화

(단위 : 도)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조 바이든 (Joe Biden)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Kishida Fumio) 총리	이시바 시게루 (Ishiba Shigeru) 총리	시진핑 (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Kim Jong Un)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
2022년	상반기	46.2	–	13.8	–	15.4	18.8	10.2
	하반기	46.2	–	22.1	–	19.1	19.3	14.8
2023년	상반기	44.4	–	21.1	–	18.2	16.2	14.9
	하반기	44.8	–	23.6	–	19.7	16.7	16.5
2024년	상반기	43.7	–	24.1	–	18.1	15.2	14.7
	하반기	43.4	–	–	27.6	19.2	14.4	14.6
2025년	상반기	–	24.7	–	24.8	19.0	13.8	15.0
평균(최근 1년)		43.4	24.7	–	26.2	19.1	14.1	14.8

질문: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비고: 2022년 이후 각 지도자별 최고점은 파란색, 최저점은 빨간색으로 표기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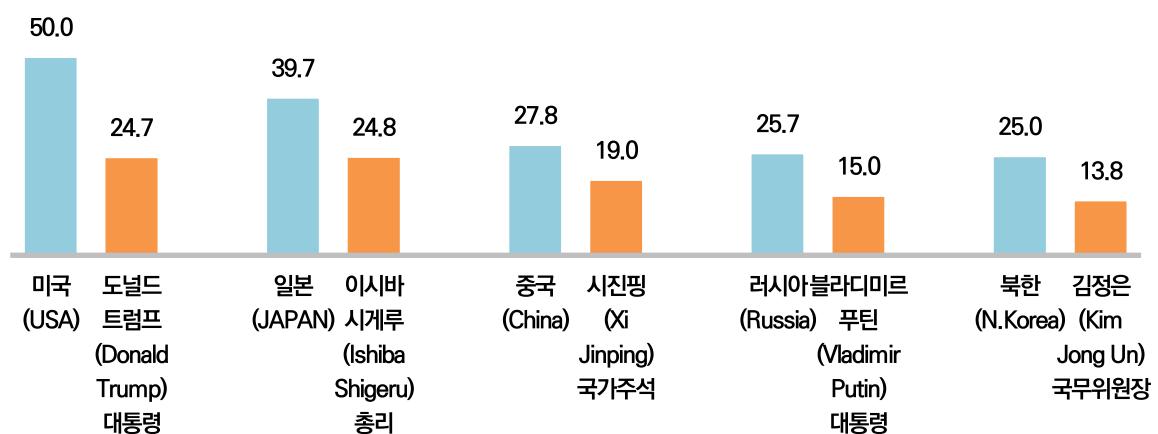
각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국가 호감도보다 낮은 경향 지속 미국은 국가 호감도와 지도자 호감도 간 격차가 주요 5개국 중 가장 커(25.3도 차)

지난 4월 초 진행했던 5개 국가별 호감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5개 국가 모두 국가에 대한 호감도보다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가 더 낮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호감도는 50.0도인 반면,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는 국가 호감도의 절반인 24.7도에 그친다. 이시바 총리 호감도(24.8도) 또한 일본 국가 호감도(39.7도)보다 15도 가량 낮다. 중국, 북한, 러시아 국가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낮은 수준이지만, 각 국가 지도자의 호감도는 이보다 더 낮다.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가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대비 20도 가까이 낮은 결과, 미국 국가 호감도와 대통령 호감도 간 격차는 25.3도로 크게 벌어졌다. 지난 하반기 미국 호감도와 바이든 대통령 호감도 차이는 13.7도였는데, 두 배 가까이 벌어진 것이다. 일본 국가 호감도와 이시바 총리 호감도 차이도 지난 하반기 11.3도에서 올해 상반기 14.9도로 소폭 커졌다.

각국 지도자에 대한 호감도, 국가 호감도보다 낮은 경향 지속 미국은 국가 호감도와 지도자 호감도 간 격차가 주요 5개국 중 가장 커(25.3도 차)

(단위 : 도)



질문: (한반도 주변국 /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neighboring countries /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주변국 호감도 - 2025. 4.4 ~ 7 // 주변국 지도자 호감도 - 2025. 4. 21 ~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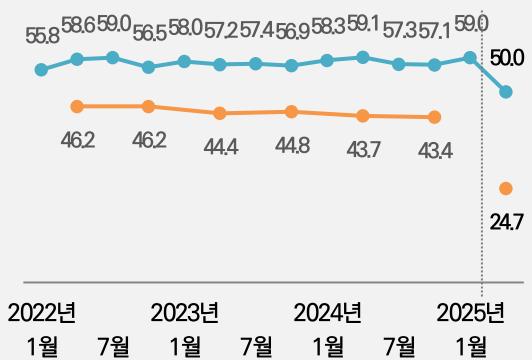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국가 및 국가 지도자 호감도 비교(2022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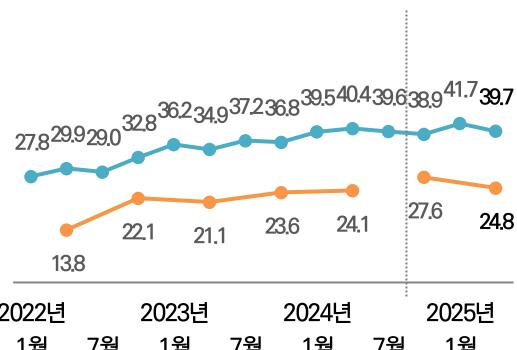
(단위 : 도)

■ 국가 호감도(Favorability toward the country)
 ■ 국가 지도자 호감도(Favorability toward the lea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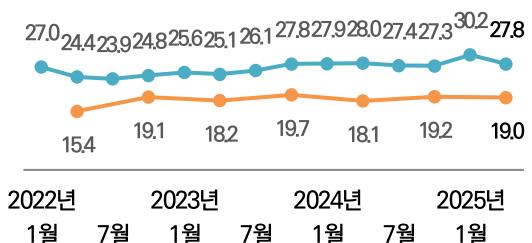
미국(USA),
 조 바이든(Joe Biden)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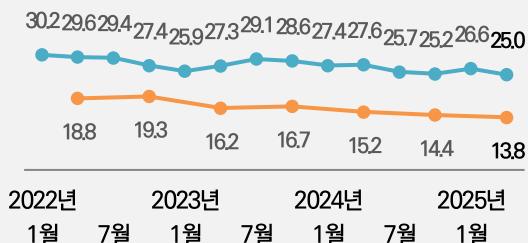
일본(Japan),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총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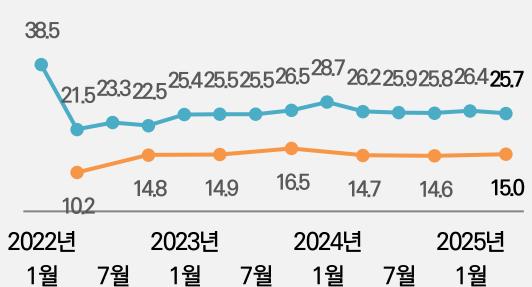
중국(China),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



북한(N.Korea),
 김정은(Kim Jong Un) 국무위원장



러시아(Russia),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질문: (한반도 주변국 / 한반도 주변국 지도자)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있는 감정을 0도에서 100도 사이로 표시해주세요. 0도는 매우 차갑고 부정적인 감정, 100도는 매우 뜨겁고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합니다. 50도는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On a scale of 0 to 100, please indicate how you feel about (the neighboring countries / the leaders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Korean Peninsula. 0 means very cold, negative emotions and 100 means very hot, positive emotions. 50 degrees means neither negative nor positive feelings.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3월 기준 약 97만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39,545명, 조사참여 1,86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5%, 참여대비 53.6%)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4월 21일 ~ 4월 23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